

## 전통문화연구회 한시 특강

조선 전기·중기 漢詩

강사 : 姜志喜(퇴계학연구원 전임연구원)

<春日>

徐居正<sup>1)</sup>

金入垂楊玉謝梅  
小池春水碧於苔  
春愁春興誰深淺  
燕子不來花未開

<乍晴乍雨>

金時習<sup>2)</sup>

乍晴還雨雨還晴  
天道猶然況世情  
譽我便是還毀我  
逃名却自爲求名  
花開花謝春何管  
雲去雲來山不爭

1) 徐居正(1420~1488) : 조선초기의 문신. 자(字)는 강중(剛中), 호(號)는 사가정(四佳亭). 본관(本貫)은 달성(達城). 관직은 대제학(大提學), 좌찬성(左贊成) 등을 역임했다. 서거정은 26년을 문형(文衡)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시는 정이오(鄭以吾), 이첨(李詹) 이후 조선초기의 제일가(第一家)였다. 신흠(申欽)은 “我朝作者, 代有其人……大家則徐四佳居正, 當爲第一”이라 하였다. 특히 그의 시편은 대개가 혼중부려(渾重富麗)하여 대가(大家)의 풍(風)이 있다. 허균(許筠)은 이 <春日> 시를 특히 호탕(豪宕)하다고 했다.

2) 金時習(1435~1493) : 조선 초기의 시인. 호는 매월당(梅月堂)·동봉(東峰)이다.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시와 경서에 능통하여 천재로 불렸으나,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를 찬탈한 것을 보고 비분강개하여 승려가 되어 전국을 유랑하며 일생을 보냈다. 시문집으로 『매월당집(梅月堂集)』이 있으며, 경주 금오산에 들어가 살면서 소설집 『금오신화(金鰲新話)』를 남겼다.

寄語世人須記認

取歡無處得平生

○ 金悅卿，落拓不遇，詩文極高。 徐達城，嘗一邀致，出姜太公釣魚圖，請題，即書一絕云：

風雨蕭蕭拂釣磯

渭川魚鳥已忘機

如何老作鷹揚將

空使夷齊餓采薇

其詩有諷意。 達城見之，默然良久曰，子之詩，吾之罪案也。

(李濟臣，『清江詩話』)

<羅嗔曲>

成侃<sup>3)</sup>

妾心如斑竹

郎心如團月

團月有虧盈

竹根千萬結

3) 成侃(1427~1456) :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화중(和仲), 호는 진일재(眞逸齋). 1441년(세종 23)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453년(단종 1)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한 후, 전농직장(典農直長)·수찬(修撰)을 거쳐 정언(正言)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기 전에 병으로 죽었다. 그는 경사(經史)는 물론 제자백가서(諸子百家書)도 두루 섭렵하여 문장·기예(技藝)·음률(音律)·복서(卜筮) 등에 밝았다. 특히, 시부(詩賦)에 뛰어나, 「궁사(宮詞)」·「신설부(伸雪賦)」 등을 남겼다.

<無爲>

李彦迪<sup>4)</sup>

萬物變遷無定態  
一身閒適自隨時  
年來漸省經營力  
長對青山不賦詩

<洛中有感>

李達<sup>5)</sup>

好爵高官處處逢  
車如流水馬如龍  
長安陌上時回首  
咫尺君門隔九重  
  
城闕參差甲第連  
五侯歌管沸雲煙  
  
灞陵橋上騎驢客

4) 李彦迪(1491~1553) : 본관은 여주(驪州). 초명은 적(迪)이었으나 중종의 명으로 언(彦)자를 더하였다. 자는 복고(復古), 호는 회재(晦齋)·자계옹(紫溪翁). 회재라는 호는 회암(晦菴: 주희의 호)의 학문을 따른다는 견해를 보여준 것이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정립에 선구적인 인물로서 성리학의 방향과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주희(朱熹)의 주리론적(主理論的) 입장을 정통으로 확립하여 이황(李滉)에게 전해주었다.

5) 李達(1539~1612) : 조선 중기의 시인. 본관은 홍주(洪州). 자는 익지(益之), 호는 손곡(蓀谷)·서담(西潭)·동리(東里). 원주 손곡(蓀谷)에 묻혀 살았기에 호를 손곡이라고 하였다. 이수함(李秀咸)이 홍주(洪州) 관기(官妓)에게서 얻은 서자이다. 최경창(崔慶昌)·백광훈(白光勳)과 더불어 삼당시인(三唐詩人)이라고 불렸다. 신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재(詩才)가 뛰어났기 때문에 당대 명사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한때 한리학관(漢吏學官)이 됐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겨서 벼슬을 버리고 떠났다. 한편 잠시 동안 중국 사신을 맞는 접빈사의 종사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일흔이 넘도록 자식도 없이 평양의 한 여관에 얹혀살다가 죽었다. 제자인 허균이 그의 작품을 모아 『蓀谷集』을 편찬하고 「蓀谷山人傳」을 써서 후세에 그 이름을 알렸다.

不獨襄陽孟浩然

<無語別>

林悌<sup>6)</sup>

十五越溪女

羞人無語別

歸來掩重門

泣向梨花月

<鞦韆曲>

林悌

白苧衣裳茜裙帶

相携女伴競鞦韆

堤邊白馬誰家子

橫住金鞭故不前

粉汗微生雙臉紅

數聲嬌笑落煙空

指柔易著鴛鴦索

---

6) 林悌(1549~1587) : 조선 전기의 문인.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자순(子順), 호는 백호(白湖)·풍강(楓江)·소치(嘯癡)·벽산(碧山)·겸재(謙齋). 문과에 급제(1577, 선조9)했으나 스승인 성운(成運)이 죽자 세상과 인연을 끊고 벼슬을 멀리한 채 산야를 방랑하며 술에 젖거나 음풍농월로 삶의 보람을 삼았다. 그의 방랑벽과 호방한 기질로 인해 당대인들은 모두 그를 기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당시의 학자이자 문인인 이이, 허균, 양사언 등은 그의 기백과 재주를 인정했다. 문집으로 『백호집』이 있다. 700여 수가 넘는 한시 중 전국을 누비며 방랑의 서정을 담은 서정시가 제일 많지만, 절과 승려, 기생과의 사랑을 읊은 시가 많은 것도 특색이다.

腰細不堪楊柳風

誤落雲鬢金鳳釵

遊郎拾取笑相誇

含羞暗問郎居住

綠柳珠簾第幾家

<彈琴臺>

朴祥<sup>7)</sup>

湛湛長江上有楓

仙臺孤截白雲叢

彈琴人去鶴邊月

吹笛客來松下風

萬事一回悲逝水

浮生三歎撫飛蓬

誰能寫出湖州牧

散步狂吟夕照中

---

7) 朴祥(1474~1530)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충주(忠州). 자는 창세(昌世), 호는 눌재(訥齋). 높은 벼슬을 하지는 않았으나 시를 잘 써서 이행(李荇)과 함께 당대에 이름을 떨쳤고, 박은(朴暉)과 더불어 후대에 높이 평가되었다. 청백리(清白吏)에 녹선(錄選)되었으며, 성현(成俔)·신광한(申光漢)·황정욱(黃廷昱) 등과 함께 서거정(徐居正) 이후 4가(四家)로 칭송된다. 1515년(중종 6) 중종반정으로 폐위된 단경왕후(端敬王后) 신씨의 복위 주장과 박원종(朴元宗) 등 3명의 훈신이 국모를 내쫓은 죄를 문기를 청했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유배되었다. 다음해 풀려나서 순천부사 등을 지냈으나 어머니의 상(喪)을 당해 그만둔 뒤 상주와 충주목사를 지냈다.

<釣磯>

李滉<sup>8)</sup>

弄晚竿仍裊  
來多石亦溫  
魚穿青柳線  
蓑帶綠烟痕

<盤陀石>

李滉

黃濁滔滔便隱形  
安流帖帖始分明  
可憐如許奔衝裏  
千古盤陀不轉傾

<贈雲江>

李玉峰<sup>9)</sup>

近來安否問如何

8) 李滉(1501~1570) :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진보(眞寶).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퇴도(退陶)·도수(陶叟). 주리론적 사상을 형성하여 주자성리학을 심화·발전시켰다. <태극도설>·<주역> 등 주자학에서 중요시되는 글뿐만 아니라 <주자어류>·<주자대전> 등 주자의 글을 평생 금과옥조로 여겨 깊이 연구했고, <주자서절요>·<이학통록>·<성학십도> 등의 저서를 남겼다. 세자시강원문학·충정도어사 등을 역임하고 1543년 성균관사성이 되었다. 1546년 낙향하여 낙동강 상류 토계에 양진암을 지었다. 1548년 단양군수가 되었다가 곧 풍기군수로 옮겼다. 1549년 병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와 퇴계의 서쪽에 한서암을 짓고 독서와 사색에 잠겼다. 1552년 성균관대사성으로 임명되었다. 1560년 도산서당을 짓고 독서·수양·저술에 전념하는 한편, 많은 제자를 길렀다.

9) 李玉峰(?~?) : 조선 중기의 여류시인. 선조 때 이봉의 서녀(庶女)로 조원의 소실(小室)이 되었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중국 명나라까지 이름이 알려진 여류 시인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이나 슬픔의 정서를 형상화한 작품이 많으며, 여성 시답지 않게 맑고 씩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32편이 수록된 『玉峰集』 1권이 전한다. <贈雲江>은 '夢魂'이라는 제목으로 더 많이 알려졌는데, 남편인 雲江 趙瑗에게 준 시이다. 남편이 자신을 찾지 않자 그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 형상화하였다.

月到紗窓妾恨多  
若使夢魂行有跡  
門前石路便成沙

<詠半月>

黃眞伊<sup>10)</sup>

誰斲崑山玉  
裁成織女梳  
牽牛一去後  
愁擲碧空虛

<采蓮曲>

許蘭雪軒<sup>11)</sup>

秋淨長湖碧玉流  
荷花深處繫蘭舟  
逢郎隔水投蓮子  
遙被人知半日羞

10) 黃眞伊(?~?) : 조선 중기의 명기(名妓). 본명은 진(眞), 일명 진랑(眞娘). 기명(妓名)은 명월(明月). 개성(開城) 출신. 미모와 가창뿐만 아니라 서사(書史)에도 정통하고 시가에도 능하였다. 당대의 석학 서경덕(徐敬德)을 사숙(私淑)하여 거문고와 주효(酒肴)를 가지고 그의 정사를 자주 방문하며 당시(唐詩)를 정공(精工)하였다고 한다. 자존심도 강하여 당시 10년 동안 수도에 정진하여 생불(生佛)이라 불리던 천마산 지족암의 지족선사(知足禪師)를 유혹하여 파계시키기도 하였다. 서경덕·박연폭포와 더불어 송도삼절(松都三絶)이라 불렸다.

11) 許蘭雪軒(1563~1589) : 본관은 양천. 본명은 초희(楚姬). 자는 경번(景樊), 호는 난설헌. 엽의 딸이고, 봉(筥)의 여동생이며, 균(筠)의 누나이다. 문한가(文翰家)로 유명한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 용모가 아름답고 천품이 뛰어났다 한다. 오빠와 동생 사이에서 어깨너머로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집안과 교분이 있던 이달(李達)에게서 시를 배웠다. 15세에 김성립(金誠立)과 혼인했으나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다. 남편은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으나 기방을 드나들며 풍류를 즐겼고, 시어머니는 시기와 질투로 그녀를 학대했다. 게다가 어린 남매를 잃고 뱃속의 아이마저 유산했다. 친정집에는 옥사가 있었고, 동생 허균도 귀양가버리자 삶의 의욕을 잃고 시를 지으며 나날을 보내다가 27세로 요절했다.